

금샘 金井

신 종 석
소설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산마루에 3장 정도 높이의 바위가 있고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자이고 깊이는 7치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고 황금색이다. 전하는 말로는 범천(梵天)의 범어(梵魚)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고 한다. 산을 금정산(金井山)이라 하고 절을 범어사(梵魚寺)라 한다.” 하였다. 범어(梵魚)는 우주 만물의 창조신이며 사바세계를 주재하고 불교의 보호신인 범천왕(梵天王, Brahmadeva)이 사는 세계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다. 범어가 내려와 놀았던 장소는 성역 중의 성소다.

부산 사람이 아니라도 낙동정맥의 시발점에 위치한 한국

의 명산 금정산에 한 번쯤 올라 보셨을 줄 안다. 금정산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금정산성이다. 18.8k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산성이다. 금정산성은 조선 숙종 27년부터 29년 무너진 산성을 보수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럼 최초에 언제 쌓았느냐? 왜 높은 산마루에 능선을 따라 50리 산성을 쌓았을까?

금정산성은 고당봉 동쪽 9부 능선에 있는 범어가 내려와 놀았다는 금샘(巖上金井) 그리고 범어사(梵魚寺)의 창건과 관계가 깊다. 범어사의 창건 신화에는 신라 문무왕이 의상 대사와 금샘에서 칠일 기도를 드린 후, 왜적을 진압하는 비보사찰로 678년(문무왕 18년) 창건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우리는 범어사의 창건 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8년 문무왕 18년은 7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여 당나라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지 2년이 지난 때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전쟁도 끝났는데, 왜 낙동정맥의 끝자락 금정산에 비보사찰과 50리 산성을 쌓았을까?

문무왕의 선왕이신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 신라는 백제에게 대야성을 빼앗기고 국가 존립이 풍전등화 신세가 된다. 김춘추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바다 건너 왜(倭)를 찾아간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칠 것이니, 삼국에 전쟁이 일

어나면 왜는 백제를 돕지 말 것과 신라의 후방을 교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왜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자주 공격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라 내물왕 때는 10만의 왜병이 백제와 함께 서라벌을 공격한 적이 있다. 신라는 급히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은 5만의 병사를 지원해 왜를 쫓은 적이 있다고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되어있다.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자, 백제를 도왔던 왜는 위기를 느끼고 백제 부흥군과 20만 왜병으로 신라를 총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당시 국경을 마음대로 넘던 사람들은 주로 법문을 전하는 승려들이었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화엄경(원본은 용궁에 있음. 전설에 의하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글자 수 10조 9만5천48자) 60권 본을 가지고 왔다. 이 경을 원효의 도움을 받아 의상이 210자로 줄여 알기 쉽게 정리했는데, 법성계(法性偈)라 이름 붙였다. 소문을 듣고 왜(倭)나라 고산사 혜명 스님이 원효에게 간곡히 법성계를 부탁했다. 혜명은 일찍이 원효를 선지식으로 섬기며 가르침을 받는 왜의 왕족 승려였다. 왜(倭) 고산사 혜명에게 법성계를 전해주면서, 왜가 신라를 총공격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원효와 의상은 급히 황산강(낙동강) 하구 다대포로 왔다. 다대포 몰운대는 낙동정맥이 시작하는 국토의 시발점이자, 신라 내을신궁의 제주가 예로부터 용궁에 제를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다. 또한 다대포는 당시 다다나로 불리었고 왜에서 가야와 가장

가까운 뱃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내물왕 때 왜적이 진 입한 길목이었다.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은 이 길을 따라 조선을 침략한다. 신라 문무왕은 왜구의 노략질에 골머리를 앓았다. 문무왕은 원효와 의상에게 왜구의 노략질을 부처의 가피로 막을 방법이 없냐고 하문한 적이 있었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동해에 묻어줄 것과 죽어 호국용이 되어 왜구의 노략질을 막겠다고 미리 유언할 정도였다. 아시다시피 문무대왕릉은 세계 유일의 동해 수중릉이다.

원효와 의상은 범천왕(梵天王)의 가피를 받아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황산강을 끼고 있는 거량산(居梁山)의 암상금정(巖上金井)에 올라, 산의 이름을 범어(梵魚)가 놀기 좋게 금정산(金井山)이라 바꾸고, 산 전체 지기부터 다졌다. 지네 형국인 왜를 쪼는 듯한 남쪽 봉우리를 닭 한 쌍의 쌍계봉(雙鷄峰)으로, 동쪽 봉우리는 닭이 운다고 계명봉(鷄鳴峰)이라 명명하고 꼭대기에 자웅석계(雌雄石鷄, 범어삼기 중 하나. 한일수호조약 후 일본이 파괴)란 암수 닭 모양의 바위를 깎아 왜의 지기를 다시 한번 더 쪼았다. 원효는 보다 가시적으로 금정산성호국대법회를 열어 사람들을 모으고 50리(18.8km) 산성을 쌓을 것을 제안한다.

신라는 34년간 삼국전쟁과 나당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 있었다. 당시 선지식 원효는 한마음 일심과 화쟁 사상으로 백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

는 세계 최강대국 당나라를 이 땅에서 쫓아내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화랑 출신인 원효는 귀족불교를 깨고 나무아미타불 6자로 백성에게 불국정토 극락 세상의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원효는 금정산성호국대법회에서 대중에게 사자후를 토했다.

“여러분! 신국은 삼한에서 제일 작고 힘없는 나라였소. 늘 백제, 고구려, 당나라 바다 건너 왜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살았소. 신국은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힘을 합쳤소. 화백회의에서 임금으로 추대 받은 알천(閼川)공께서 스스로 선왕에게 양위하고, 인문(仁問) 왕자가 신하로서 문무대왕을 받들고, 영웅 유신(庾信)공께서 사심 없이 한마음 일심(一心)이 되어 삼국을 통일하고, 이 땅에서 당나라를 쫓아내었소. 이제 우리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군 임금의 홍익인간 이념으로 불국정토를 만들어야 하오. 그런데 왜는 20만 대군으로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오. 왜가 신국을 넘보지 못하게 금정산에 제일 길고 웅장한 산성을 쌓으면 왜적들은 애당초 신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웁소! 산성을 쌓읍시다.”

연이어 누군가가 또 외쳤다.

“우리 같은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소.”

승려들은 파수꾼을, 남자들은 의병을, 아낙네들은 밥 짓는 일을, 어린아이들은 심부름을, 늙은이들은 산에서 나무하는 소임을 앞다투어 자청했고, 귀족들은 많은 재산과 쌀을 기부했다. 사람들은 당나라를 이 땅에서 쫓아내듯이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 한마음 일심(一心)으로 성을 쌓고 기도를 드렸다.

신라가 금정산에 웅장하고 긴 산성을 쌓자, 왜는 침략해도 승산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20만 대군으로 신라를 총공격한다는 계획을 포기한다. 백성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빛나는 수성이 남극성 아니신가
끝없는 장수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신가
어와 우리들이 태평시대에 놀았어라
백년이 이 같기를 천년이 이 같기를
만년 또 억만년이 해마다 이 같기를
우리 임금님 오래 오래 사시길 빌고 빌어

— 원효불기조(元曉不羈條)

인문세상